

亂世의 知識人과 선비정신

한승옥*

목 차

- I. 序論
 - II. 知識人과 선비, 선비정신
 - III. 現代 小說에 나타난 知識人과 선비정신
 - IV. 亂世의 知識人과 선비정신
- 참고문헌

I. 序論

새천년을 맞은 지도 어언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을 때는 금시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처럼 요란했으나 삼 년이 흘러간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성적이거나 미래 전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불확정성을 동반한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며, 신자유주의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의 종속적 경제 질서에 예속시키며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수치로 계산되며, 인간성은 말살되고, 우리의 전통적 정신 가치였던 인간간의 의리나 인정, 혹은 지조 등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것이 실용적 가치로만 가치 판단되며, 정신적 가치는 부차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발전이나 근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까지 인식되는 한심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유아 시부터 실용화를 위한 준비로 미국 종속을 가속화시키는 영어 교육에 열중하고, 중등학교의 교육

* 숭실대 국문과 교수

이 오로지 지식습득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으로 하여 인격은 방기한 채 인간을 지식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과연 지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지식을 쌓아가는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의 삶인가를 성찰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전통에 입각하여 볼 때, 지식인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여 진 것도 지식인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선비와 선비 정신을 되짚어 보고 그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여 여기서는 먼저 서양에서 말하는 지식인의 개념과 우리 나라 전통적인 선비와 선비정신을 살펴 본 후, 난세 중에 난세라 할 수 있었던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발표되었던 두 대표적 작품인 〈無情〉과 〈三代〉에 나타난 지식인상을 고찰한 후, 실제로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난세의 지식인이자 지성인이었던 조지훈의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좌표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II. 知識人과 선비, 선비정신

지식인이란 개념은 서구에서 발달한 것이기에 먼저 서구에서 사용되는 지식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전통적인 지식인상인 선비와 연관하여 고찰하는 것이 편의상 좋을 듯합니다.

지식인이란 지식 계급에 속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서구에서는 지식인의 밑바탕이 되는 '지식'이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knowledge, information, intellectuality, mentality, 등으로 쓰이며, 지식을 지닌 사람, 즉 지식인이란 용어로는 intelligentia, intellectuals, intelligent, man of knowledge, man of idea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편의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식인의 개념은 교육받은 사람으로 관념적 경향이 강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과 대응되는 또 하나의 개념인 지성인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식인과 지성인을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는 원래 19세기 러시아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었다가, 그 뒤 비육체 노동자란 뜻으로 확대되어 쓰이게 된 것이고, 이와는 달리 인텔렉추얼(intellectuals)은 사상을 창조하고 전달하고 비판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작가,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종교사상가, 사회이론가, 정치평론가 등을 지칭’¹⁾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있으므로 이들을 우리는 정신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정신노동자들이 단순하게 자신이 습득한 지식만을 사용하면 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은 조직의 이익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을 지향하고 창출해야 하는 지식인 본래의 의무와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단순한 톱니바퀴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여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자율성이라든가 전체적인 통찰력이라든가, 비판력 등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식은 단순한 전문적 지식의 공급에 머물 뿐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그를 고양시키는 데는 그가 쌓아 온 지식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전수하거나 그를 통해 해당 분야의 학문을 발전시킨다든가 조직을 활성화하고 견고히 하는 것도 의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식인은 이런 실용적인 것에만 매달려서는 진정한 지식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대중의 현실적 욕구에만 오로지 매달려 그의 해결에만 주력하거나 그에 함몰하여 자신의 영리만을 위한 소아적 이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현실 추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실을 초탈하여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화적 창조자로서의 지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진정한 지식인이 될 것이며,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지식인은 비로소 참다운 ‘지성인’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과 지성인은 차이가 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인이 사회로부터 초월하여 사회·역사적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외

1) 이은자, 『1950년대 한국 지식인 소설 연구』, 태학사, 1995, 24면.

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식인도 인간인 이상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러워 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식인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실의 문제에 비판적 안목과 해안을 가지고 주체성 있게 현실을 바라보며, 정열적으로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여 영감을 통해 사회를 재창조해 나가는 지식인 곧 다시 말해 단순한 지식인과는 다른 '지성인'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지식인, 곧 살아있는 지식인인 지성인은 우리 지성사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선비'가 그것입니다.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서, 특히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 계층을 가리킵니다.²⁾ '선비'의 개념 규정은 금강태교수의 소론이 종합적이면서도 간략하고도 심도 있게 풀이되어 이를 주로 참고하였다.

선비의 개념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선비는 한자어의 士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말에서 선비는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선비'에서 왔다고 합니다. '선'의 '선'은 몽고어의 '어질다'는 말인 'sai'의 변형인 'sain'과 연관되고, '비'는 몽고어 및 만주어에서 '지식 있는 사람'을 뜻하는 '박시'의 변형인 '부이'에서 온 말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한자의 士는 '벼슬한다'는 뜻인 仕와 관련된 말로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士는 '十'(수의 끝)과 '一'(수의 시작)의 결합으로 된 會意文字로 보기도 합니다. 곧 十을 미루어 一에 합한다고 풀이하면 넓은 데에서 간략한 데로 돌아오는 博文約禮 의 교육 방법과 통하고, 一을 미루어 十에 합한다고 풀이하면 하나의 도리를 꿰뚫는다는 뜻과 통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士'는 지식과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말의 선비와 뜻이 통합니다.

공자는 자신들을 선비의 집단으로 자각하였으며, 道에 뜻을 두어 거친 옷이나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격을 선비의 모습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선비는 관직이나 신분 계급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덕성을 갖춘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子張은 '선비가 위태로움을 당하여서는 생명을 바치고, 이익을 얻게 될 때는 의로움을 생각한다.'라 하여 의로움을 선비의 덕목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맹자는 '일정한 생업

2) 琴章泰, '선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28면. '선비'의 개념 규정은 금강태교수의 소론이 종합적이면서도 간략하고도 심도 있게 풀이되어 이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 없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라 하여 志操를 선비의 인격적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로부터 유교가 수입됨으로 하여 이러한 선비의 개념이 성장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라의 강수와 설총인데, 특히 설총의 〈花王戒〉는 신문왕에게 '어진 이를 가까이 하고 여색을 멀리하라'고 간언한 것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직언하는 선비의 기개를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비의 전통은 고려를 거쳐 조선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고려 말 절의를 지킨 정몽주와 절개를 굽히지 않은 길재는 선비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조에 훈구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림 정치 시대를 연 사람과의 목숨을 건 투쟁은 바로 선비가 어떤 속성의 집단인지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도학의 이념을 담당하는 계층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지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의리와 신념을 사회 속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선비는 讀書人이요 학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지식인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학문을 통해 지식의 양적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를 확신하고 실천하는 인격적 성취에 목표를 둡니다. 또한 선비는 항상 인격적인 도덕성을 배양하지만 동시에 그 인격성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비의 공부는 이치를 탐구하는 지적인 일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위적 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지식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지성인의 면모가 이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황은 선비를 세력과 지위에 굽히지 않는 존재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비는 부와 귀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의의 유교이념을 신봉합니다. 특히 세속적 가치를 인간의 욕망이 지향하는 이익이라 한다면 선비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성품에 내재된 의리라 하겠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란 말은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선비는 의리를 위하여서는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는 강인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 인을 해치지 않으며, 죽음으로써 인을 이룬다.'는 말은 공자가 志士를 지칭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비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예를 우리는 사육신과 생육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임금에 대한 절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비들의 의리 정신은 외민족의 침략을 당할 때 침략자의 불의에 목숨

을 걸고 항거한 의병이나 지식들의 강인한 행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결을 하거나 폭탄을 투척하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독립투사들에게서 이런 선비 정신이 재삼 확인됩니다.

선비는 예법과 의리의 주체요, 사회적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인’의 포용력과 조화정신은 선비의 화평하고 인자함에서 나타나며, 예의는 선비의 염치 의식과 사양심으로 표현되고, 믿음은 선비의 넓은 교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선비는 평상시에 화평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지공무사한 중용을 지킵니다. 그러나 의리의 정당성이 은폐될 때에는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엄격하게 비판하고 배척하는 정신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³⁾

이상에서 볼 때 서구에서 말하는 지성인과 우리의 선비는 서로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선비가 서양의 지성인보다도 더 강인하고 매운 일면이 있으며, 그들보다도 더 실천적인 지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비 정신은 우리의 대표적인 난세 중에 난세였던 식민지 시대의 현대 소설에서도 등장인물을 통해 확인됩니다.

III. 現代小說에 나타난 知識人과 선비정신

이광수는 개화기 지식인으로서 반유교주의의 선봉에서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의 첫 장편 소설인 〈無情〉은 반유교주의가 표방된 소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품 안에는 진정한 유교 지식인의 풍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주인공 박영채의 아버지 박진사의 면모입니다. 박진사는 〈無情〉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사십여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 읍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일가가 수십여 호 되고, 양반이요 재산가로, 고래로 안주 일읍에 유세력자라니, 신미년 난에 역적의 혐의로 일문이 혹독한 참살을 당하고, 어찌어찌하여 이 박진사의 집만 살아 남았다. 하더니 거금 십 오륙년 전에 청국 지방으로 유람을 갔다가 상해에서 출판된 신서적을 수십종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서양의 사정과 일본의 형편

3) 상동, 233면.

4) 이광수, 〈無情〉 5회, 『이광수전집』1, 又新社, 1979.

을 짐작하고 조선도 이대로 가지 못할 줄 알고 새로운 문명 운동을 시작하려 하였다.⁴⁾

인용문의 내용으로 보아 박진사는 양반 사대부 가문이었으나 당쟁과 사회에 휘말려 가문이 멸족의 위기에 처하였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국에 유람을 갔다 왔다 하니 실학과 유가 집안이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 구입한 서적이 어떤 책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책을 통해 서양과 일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철도니 화륜선이니 하는 지식을 얻었다 하니 당대의 국제 정세를 소개하고 과학의 힘이 어떠한가를 깨우칠 수 있었던 서적의 일종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無情〉에서 박진사는 삼사 년 후에 대 용단을 내려 평안도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즉시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고 아들 둘도 그렇게 시킵니다. 여기서 검은 옷을 입혔다 하니 당시에는 동학도들이 검은 옷을 입었으니 이것이 동학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박진사가 개화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남주인공인 이형식은 이때 고아로, 의탁할 데가 없자, 박진사가 데려다 무료로 공부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형식은 작품에서 산술과 일본어가 뛰어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과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과 일본이 문명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박진사는 남주인공 이형식의 최초의 욕망의 중개자 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키우는데 절대적인 모방의 대상이 됩니다.

〈無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은 여주인공 박영채입니다. 이때 나이가 열두 살입니다. 박진사는 남들이 비웃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딸인 영채를 신식 학교에 보내며,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는 〈소학〉, 〈열녀전〉 같은 것을 가르치며 열두 살 되던 여름에는 〈시전〉도 가르칩니다. 박진사는 어린 딸에게 서양 학문과 유학의 기초가 되는 동양 학문을 동시에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진사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양의 신학문도 섭취해야 하나 동시에 우리의 전통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던 인물입니다.

박진사는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유림이면서도 척사 위정파의 수구세력과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할 것을 시

5) 琴章泰, '선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5면.

도한 온건한 개화파에 속하는 인물로 짐작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유교의 악폐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박은식 계열의 유학자들인 것입니다.⁶⁾ 만일 박진사의 의도가 좌절되지 않고 실행되었다면, 그것도 민족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개화가 진행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주체성 있는 개화가 실현되었을 것이고, 선비정신도 계승되었을 것이며, 일제에게 식민지화되는 치욕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無情〉이 '여명기의 혼란이 시작되려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든 점⁶⁾을 염두에 둘 때, 박진사의 이러한 행동과 가치 지향성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박진사와 영채는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리만치 희소한 유교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반어적으로 유교 사상의 선양이나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유교의 구습을 타파하고 신문명을 소개하기 위해, 말하자면 일종의 희생양으로 등장시킨 인물들입니다. 이광수는 박진사와 영채를 이형식이 뛰어넘어야 할, 제거되어야 인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종의 걸림돌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無情〉이 지니는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합니다.

이광수가 이형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서구문명의 수입이었습니다. 이런 욕망을 채워주고 그것을 중개해 줄 수 있는 인물은 박진사가 아니라 선형의 아버지 김장로였습니다. 박진사가 토착적이고 주체적 개화파였다면 김장로는 뿌리 없는 서구지향적, 외세지향적 개화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無情〉의 기본 구도가 박진사의 과거 의리로부터 해방되어 김장로로 표상되는 신문명적 가치로 이행되어 가는 구조로 짜여진 것은 토착적 개화세력이 몰락하고, 외세 지향적 개화파가 발흥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이광수는 유림들을 개화 신흥세력이 되기는 아예 틀린 것으로 간주하였을 것입니다. 이광수는 박진사 같은 유학자층의 개화파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몰락합니다. 이형식은 작품에서 결국은 외세지향적인 개화파인 뿌리 없는 김장로를 욕망의 중개자로 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비정신은 그 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이광수의 세계관이었으며, 비극이었습니다.

염상섭의 〈三代〉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삼대에 걸친 세대간의 갈등을 종축으로 하면서 당대의 예민한 시대정신인 사회주의 운동, 곧 독립운동의 한 실상을 횡축으로

6) 이광수, 『처녀작 (무정)과 (개척자)』, 『이광수 전집』 10, 우신사, 1979, 521면.

전개시킨 한국현대문학사상 명작으로 꼽히는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三代〉에서 제1세대인 조의관은 유교세대로, 제2세대인 조상훈은 개화기 세대로, 제3세대인 덕기는 관망하는 신세대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 말은 크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의관은 철저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며, 조상훈은 개화기 세대가 그렇듯 기독교에 자신을 의탁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실현하려 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덕기는 할아버지의 유교적 가치관과 그에 충돌하는 아버지 조상훈 사이에서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모색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조의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인물이 아니며,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조상훈도 바람직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종교는 조의관의 경우처럼 이기주의적 허욕이거나 아니면 조상훈처럼 도피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질입니다. 이 말은 염상섭이 〈三代〉에서 조의관이나 조상훈을 통해 제시한 유교나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유교나 기독교를 선양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풍자하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위선과 허위를 백일하에 폭로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염상섭의 조의관에 대한 풍자는 은근하면서도 신랄하다.

조의관에게는 평생의 오입이 몇가지가 있다. 하나는 을사조약 한참 전에 그때돈 이만 냥, 지금 돈으로 사백 원을 내놓고 사십여세에 육관자를 붙인 것이다. 차함은 차함이로되 오늘날의 조의관이란 택호가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이 이니요 또 하나는 육년 전에 상배하고 수원집을 들여 앉힌 것이니 돈은 여간 이만 냥으로 언론이 아니나 그 대신 정순이를 낳고 또 여든 다섯에 죽을 때는 열 다섯 먹은 아들을 두게 될지 모르는 터인즉 그다지 비싼 오입이 아니나 맨 나중으로 하는 오입이 이번 이 대동보소를 맡은 것인데 이번에는 좀 단단 걸려서 이만 냥의 열품 이십만 냥이나 쓴 것이다. 그것도 어엿이 자기 집 자기 종파의 족보회를 꾸민다면야 설혹 지금 시대에 여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덮어놓고 오입이라고 하여서는 말이 아니요 인사가 아니겠지만 상훈이로 보아서는 대동보소라는 것부터 굳이 반대는 안한다 하여도 그리 긴한 것이 없는데 게다가 ××씨의 족보에 한몫 비집고 끼려고- 덤불이가 되려고 사천원 탬이나 생돈을

7) 염상섭, 〈三代〉, 『한국문학전집』3, 민중서관, 1959, '제일충돌'.

내놓는다는 것은 적어도 오입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돈을 주고 양반을 사) 이것이 상훈이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다.⁷⁾

‘돈을 주고 양반을 사!’ 이것은 개화세대인 조상훈의 생각입니다. 일찍이 기독교에 사상적 세례를 받았고, 또 미국도 이년이나 갔다 온 개화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훈이 현실적으로는 부패해있지만 비판의식만큼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가 이미 개화기도 지난 비록 식민지 통치기간이긴 하지만 서구문물을 알만큼은 알게 된 개명천지가 아닌가. 그런 시대에 돈으로 양반을 사다니! 하는 생각이 조상훈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의관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은 있습니다.

조의관으로 생각하면 이때 것 자기가 쓴 돈은 자기 부친이 물려 준 천냥에서 범용한 것이 아니라 자수로 저 늘린 속에서 쓴 것이니까 그리 아깝지도 않고 선고의 혼령에 대하여도 떳떳하다고 자궁하는 것이다. 저 잘나면 부조의 추중도 하게 되는 것인데 있는 돈 좀 들여서 양반 되기로 남이 웃기는 새로에 그야말로 이현 부모가 아닌가 하는 요량이다.⁸⁾

돈을 들여서 이현부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것이 조의관의 가치관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서는 돈으로 양반을 사려다가 그 위선적이고 도둑놈 같은 행위에 놀라 양반이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조선조 말 실학시대의 〈양반전〉이 가진 비판 정신이었다면, 〈삼대〉에서의 조의관의 행위는 식민지 시대의 신〈양반전〉에 해당하는 諷刺감입니다. 조의관은 나라가 일제에 빼앗겨 온 민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시대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못 다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으로 양반을 사는 시대의 백치인 것입니다.

조의관이 지닌 가치관이 진정한 조선조 선비정신이나 아니면 적어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가장 일반적인 유교정신의 실현자였다면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의관은 자신의 허욕에 맡려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훈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기독교도로 조상제

8) 상 동.

사를 받들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조상훈이 아버지인 조의관의 가치관대로 조상을 받들고 조의관에 순종하였다면 유산은 대부분 아들인 상훈에게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훈은 그 시대의 공통적인 지식인상이 그렇듯 아버지의 치부에 반감을 품고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좌절하여 부패해 버린 우리의 연민어린 변혁기의 지식인인 것입니다.

조의관이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명을 단축하게 된 이유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벌인 오입의 결과였다라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의관이 죽게 된 것이 비소중독이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조의관에게 비소를 먹인 것이 그가 가장 가까이 하였던 수원댁이었다는 사실은 돈의 허욕이 가져오는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돈이 아니라 진정한 유교적 가치관인 道나 선비정신이 실현되고 있는 집안이었다면 조의관의 생명은 그렇게 비참하게 비명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원 집을 비롯하여 최참봉, 매당으로 이어지는 음모의 끈은 돈을 탐욕하는 버리지 같은 소인배들의 작당이 어떻게 세상을 좀먹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염상섭은 조의관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의 허위적인 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진정한 유교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당대의 현실적인 유교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三代>는 반유교주의만을 표방하였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상섭은 조의관을 통해 형식적 유교주의적 인물의 반유교주의적 실상을 제시하면서, 진실은 그 이면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고유정신 중에 가장 정수라 할 수 있는 '선비정신'입니다. 선비는 원래 유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선비는 이미 상고시대부터 高神道를 배경으로 내려온, 문무를 겸전한 이상적 인간상이었습니다.⁹⁾ 신라시대의 화랑도 상고시대를 이어 고구려로 이어지는 선비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조에 와서 유교와 접맥하여 儒生과 士가 합하여져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일찍이 신채호는 선비는 우리의 무사도이며 우리 민족의 빛이며 정신이라 하였습니다.¹⁰⁾

<三代>에서 우리는 몇몇의 志士를 대할 수 있습니다. 흥경애와 필순의 아버지가

9) 『유학사전』, 조선유학회편, 684면.

10) 상 동, 685면.

그들이요, 덕기의 친구 병화를 비롯하여 장개석이란 별명을 가진 장훈, 그리고 피혁 등입니다. 이들은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횡축의 인물로 조의관이나 조상훈이 자기 안일과 이기주의에 빠져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할 때, 민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생성적인 인물들입니다. 〈三代〉가 생명력을 지닌다면 이들 횡축을 장식하는 인물들의 생동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들 인물들은 가깝게는 건위수명하는 조선조의 대쪽같은 선비정신을 체현한 인물들이며, 멀게는 우리 고유사상인 고대의 문무를 겸비한 爲公奉公하고, 捨身全義하는 선비정신을 목숨 바쳐 실행한 인물들입니다.

장훈이 검거되어 동지들의 안위를 위해 모든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 쓴 채 혀를 깨물고 자결하려 하였을 때, 의식이 가물거리는 장훈에게 일본 형사 금천이 빈정거리듯 비꼬는 말에서 이러한 선비정신을 역설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금천이는 피투성이의 얼굴을 눈살을 찌푸리고 들여다 보며 말을 하였다. 듣기에 따라서는 비웃는 어조 같기도 하다.

“지사란 무사의 정신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무사는 죽음을 깨끗이 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이왕 죽으려면 저 피스톨로(자기 책상 위에 놓인 피스톨을 가리킨다.) 비장하고 남자다운 최후를 마친다면 오히려 장쾌하지나 않을까?”¹¹⁾

여기서 금천의 의도는 장훈이 죽기 전에 피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가 정말 지사를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이란 말은 염상섭이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을 피해 금천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장훈은 혀를 깨물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러한 志士의 죽음은 상황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날지 모르나 경애의 아버지가, 필순 아버지가 죽을 때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들은 고려말로부터 이어온 ‘綱常의 선비정신’을 목숨을 바쳐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조의관이나 조상훈

11) 염상섭, 〈三代〉, ‘피묻은 입술’.

처럼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안일이나 노름과 색정에 탐닉하면서 반민족적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선비정신의 위대성이 존재합니다.

다음 항에서는 난세를 살다간 진정한 지성인이며 선비정신의 계승자였던 시인 조지훈의 삶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 亂世의 知識人과 선비정신

趙芝薰은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 난 경북 북부 지방에서도 여러 모로 손꼽히는 명가의 후손입니다. 조부인 조인석은 그 세대 그 고장 선비로 언변과 志氣를 함께 갖춘 분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4남매의 자녀에게 모두 신교육을 받게 하여 위로 형제는 동경에까지 보내어 대학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지훈의 백부 및 지훈의 부친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제 때 이른바 浪人 생활로 일관합니다. 하여 지훈의 조부는 그를 슬하에 두어 漢學을 공부케 하려 했다 합니다. 그러나 지훈의 재질을 이내 발견한 조부는 ‘이 놈도 내 옆에 붙어 있을 놈이 아니로구나’하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지훈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중학교정을 단시일에 자습하여 검정을 거쳐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와 같은 집안 출신의 그 세대의 사람으로서는 이색적일 정도로 일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며, 이 점이 그의 교양과 성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됩니다.¹²⁾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지훈은 유교 내지 한문학적인 바탕 위에 불교적인 체관과 선의 기미를 곁들인 지식인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였기에 그는 단순한 지식인에 머물지 않고 지조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의 유명한 논설인 〈선비의 直言〉에서 知性人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성인은 고인이 이른바 식자인 또는 독서인이요, 우리말로는 선비다. 그러므로 지성인의 사명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곧 선비의 본분이 무엇이나 하는 말이 된다. 을

12) 김종길, 「조지훈론」, 『조지훈연구』, 김종길 외, 고려대출판부, 1978, 434면.

13) 조지훈, 〈선비의 直言〉, 『조지훈전집』5, 일지사, 1973, 22면.

사보호조약 이후 많은 지사가 순국할 때 번민하다가 마침내 합방의 소식을 듣고 飲藥自決한 黃梅泉 선생은 그의 난세시 『秋燈掩券悔千古 難作人間識字人』(책 덮고 지난 역사 헤어를 보니/글이는 사람구실 어렵군 그래)이란 句를 남겼거니와 진실로 인간이 선비 노릇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진실을 토로하였던 것이다.¹³⁾

라 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지훈이 생각한 식자인, 곧 지식인은 독서를 통한 지식의 축적은 물론 황매천 선생과 같은 행동하는 지성인을 참다운 지식인으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지식인이란 앞에서 살펴 본 의리의 지식인, 곧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선비정신을 지닌 참다운 선비이며 불의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행동하는 지성인을 말합니다.

하기에 지훈은 변절자를 매도하였고, 志操를 높이 샀습니다. 지훈은 그의 유명한 논설 〈志操論〉에서 ‘지조와 정조는 다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고,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 생활의 이욕에 매수된 것이요, 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쾌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 것’¹⁴⁾이라 하여 선비의 정신적 지고의 가치인 지조가 현실적인 육체적 탐닉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설파하면서 그에 늘어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선블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 안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지훈이 무력 앞에 무릎을 꿇 사람들을 모두 변절자로 치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오히려 추앙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치욕에 김상헌이 찢은 항서를 도로 주워 모은 주화와 최명길은 당시 민족정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나 瀋陽의 감옥에 김상헌과 같이 갇혀 오해를 풀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주화와 최명길은 자기 신념에 투철하여 일관된 행동을 보여 주었기에 오히려 참된 지조있는 선비라 하였습니다. 지훈은 〈지조론〉에서 뼈아픈 교훈을 들려줍니다. “少忍飢하라”입니다. 광해군 난정 때 선비들이 모여 청담을 나눌 때 아내가 땀감이 없어 상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쪼개다가 젖을 찍게 되자 그 선비가 가난이 죄라 하면서 변절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반정으로 죽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14) 조지훈, 〈志操論〉, 『조지훈전집』5, 일지사, 1973, 16-17면.

조금만 더 배고픔을 참았으면 될 것을 하는 아쉬움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지닌 지훈의 면모는 그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식자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 곧 참다운 지성인으로서 일생을 살다간 선비였습니다. 지훈을 가까이서 모신 홍일식은 지훈을 '결코 단순한 시인도, 학자도, 논객도, 지사도, 문필인도 아니다. 그의 진면목은 굳이 하나의 명칭으로 형상화한다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한국의 「선비」라고나 할까. 현대말로 바꿔 부른다면 우리 세대를 대표할 만한 참다운 「지성인」이었다.'¹⁵⁾라 하였습니다. 홍일식은 선비의 풍모를 보인 지훈의 지성인다운 행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제말기에 그가 분연히 붓을 쥐고 오대산으로 몸을 숨긴 것도, 또 8·15 광복 직후 그가 약관 20 여세의 나이로 학계와 문화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민족문화진흥의 선봉장으로 공산주의자와 과감히 대결한 것도, 6·25 동족상잔의 비극 앞에 스스로 이 처절한 민족사의 증인이 되고자 용약 종군작가단을 만들어 전선을 누비고 다닌 것도, 1950년대 후기, 자유당 정권하에서 대부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계의 소위 지도급 인사란 자들이 권력과 금력 앞에 맹종과 아첨을 일삼을 때, 홀로 〈志操論〉을 써가지고 나와 민족의 양심으로 이들을 매도한 것도, 또 만년에 그가 한때 정치교수(?)로 몰려 당국에서 기위하는 바 되자, 항상 사직서를 몸에 지니고 다닌 것도 모두가 범인으로서의 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 이러한 그의 인생편력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¹⁶⁾

라 하면서 '지훈은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격변기를, 과도기를 살다간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다.'¹⁷⁾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본 발표자는 지훈의 〈지조론〉의 일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참다운 지성인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홍일식, 〈芝薰의 人品과 香薰〉, 『조지훈연구』, 고려대 출판부, 1978, 442면.

16) 상 동, 442~443면.

17) 상 동, 450면.

‘志操란 것은 純一한 精神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志操가 교양인의 위의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를 살피려 한다. (중략)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정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¹⁸⁾

불확정의 시대이며, 급격한 변화의 격랑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밀레니엄 시대, 이런 난세를 살아갈 때 지훈의 삶과 선비정신은 우리에게 아직도 사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판을 돌아보아도 지훈이 살다간 난세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볼 때, 지성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참고문헌

- 琴章泰, 〈선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김종길, 『조지훈론』, 『조지훈연구』, 김종길 외, 고려대출판부, 1978.
염상섭, 〈三代〉, 『한국문학전집』3, 민중서관, 1959.
이광수, 〈無情〉, 『이광수전집』1, 又新社, 1979.
이은자, 『1950년대 한국 지식인 소설 연구』, 태학사, 1995.
조지훈, 〈선비의 直言〉, 『조지훈전집』5, 일지사, 1973.
조지훈, 〈志操論〉, 『조지훈전집』5, 일지사, 1973.
홍일식, 〈芝薰의 人品과 香薰〉, 『조지훈연구』, 김종길외, 고려대 출판부, 1978.

18) 조지훈, 〈志操論〉, 『조지훈전집』5, 일지사, 1973, 16면.